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전국 우수’… 글로벌 허브 도약

산업부 ‘소부장 특화단지 성과공유회’ 연구개발, 인력양성, 투자유치 등 산업 육성 인정받아… 경쟁력 입증

부산시는 산업통상부가 주최한 ‘2025 소부장 특화단지 성과 공유회’에서 부산 전력 반도체 특화단지가 전국 우수 특화단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3년 정부에서 제2기 소부장 특화 단지로 지정받은 이후 추진해 온 성과가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부산 특화단지는 8인치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 생산 인프라 조성, 1.7kV급 모빌리티 화합물 반도체 연구 개발 성과, 재직자 전문 인력 양성, 앵커 기업 투자 유치, 협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24년 12월 기회발전특구와 2025년 11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과 기업 유치 기반을 단



부산시청

계별로 마련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SK파워텍과 제엠제코 등 앵커 기업 협약 체결, 아이큐랩 등 차세대 전력 반도체 생산 기업 유치, 국제 탄화규소 학술대회 국내 최초 개최 등 글로벌 협력 성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올해 사업 2년 차를 맞은 부산 전력 반

도체 특화단지는 여러 분야에서 기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연구 개발 분야에서는 주관·참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권을 통한 지식 재산권 연구 개발 전략 수립을 마쳤으며 대구 및 광주 특화단지와 수요 연계 협력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인력 양성 분야에서는 연 120명 규모의 재직자 전문 기술 인력 양성과 함께, 부산 지역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 및 전력 반도체 종합 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1110명의 화합물 반도체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부산 팹리스 생태계 조성 업무 협약을 통한 팹리스 아카데미 개설, 부산-나고야시 간 화합물 반도체 국제 교류 추진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기업 투자 유치 분야에서는 SK파워텍의 700억원 규모 양산 설비 확대, 아이큐랩 본사 및 생산 시설 준공, 네이처플라워 세미컨덕터 착공 등으로 특화단지 내 기업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부산시는 기장군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총 4000억원을 투입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남부권

거점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8인치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 전용 생산 시설 구축, 고효율 화합물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 사업에 600억원을 투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양산용 팹, 기업 지원센터, 전력 반도체 연구 개발 센터 구축 등을 통해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우수 특화단지 선정은 부산의 전력 반도체 산업 육성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차세대 전력 반도체 산업 육성과 기술 자립화를 지속 추진하고, 해양 반도체 등 부산 특성을 살린 신산업 발굴을 통해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및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이철우 경북지사,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1위’

리얼미터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55.1% 기록… 4개월 만에 1위 탈환

리얼미터가 16일 공개한 지난달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서 이 지사는 55.1%를 기록해 전월 대비 2.8%포인트 상승하며 지난 7월 공동 1위 이후 4개월 만에 1위에 올랐다. 이어 김영록 전남 지사가 54.9%로 2위, 김두겸 울산시장이 54.0%로 3위를 기록했다.

지역별 지지 정당 계층을 기준으로 한 정당지표 상대지수(소속 정당 지지도 대비 평가 우위 측정)에서는 대전 이장우 시장이 127.2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울산 김두겸 시장(114.2점)과 강원 김진태 지사(113.7점)가 각각 2, 3위를 기록했으며 이철우 지사는 103.5점으로 8위를 기록했다.

비교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그 지역의 정당 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많고,

100에 미달되면 지지층이 적음을 의미 한다.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59.0%로 6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전남 김대중 교육감이 2위, 울산 천창수 교육감이 3위를 차지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5위,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6위에 올랐다.

11월 주민생활 만족도 지수에서는 세종시가 70.5%로 1위, 대전시가 2위, 전남도가 3위를 기록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12위까지만 공개하는 순위에 들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월 30일~11월 1일, 11월 28일~11월 30일 전국 18세 이상 1만 3600명(시도별 10~11월 각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이며, 응답률은 3.4%이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

전주상의-광주지방국세청

세제지원 논의 등 전북 기업 활력 제고 ‘맞손’

전북 기업 경영부담 완화·활력 제고

기업 애로사항 공유, 세제방안 등 논의

전주상공회의소와 광주지방국세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지역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활력 제고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15일 전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을 비롯한 전주상의 회장단과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강신웅 전주세무서장, 최은경 북전주세무서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광주지방국세청이 직접 현장을 찾아 지역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법인세·소득세·상



지난 15일 전주상공회의소와 광주지방국세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지역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전주상공회의소

속세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 적용, 지방 취업 청년 대상 세제 혜택 확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수수료 면제 등 을 건의했다. 또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요건 완화와 기업 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상향 조정 등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요구도 제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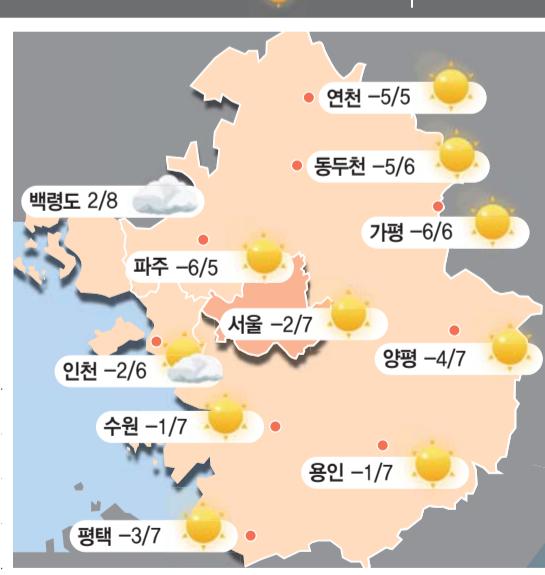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회복의 출발점은 기업의 생산 활동이다. 시 활기를 찾는 데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만큼 세정 지원 강화와 세무조사 완화 등 실효성이 있는 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전북 기업인들이 국세 행정 과정에서 소외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역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전북)=김종일 기자 kji7219@

오늘의 날씨



인천시, 청소년 도박 예방 위해 민관 협력

온라인 불법도박 노출 위험 커져
학교-지역사회-전문기관 업무협약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6일 인천경찰청, 인천YMCA·YWCA, 가천대길병원, 인천차량병원, 인천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생 도박 예방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이 추진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



학생 도박 예방 민·관 업무협약식

/인천시

전문기관 협력을 통해 학생 도박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

메트로 한줄뉴스



▲美, EU 빅테크 규제에 ‘상응조치’ 경고…韓은
플법도 대응 논의
▲마스크, 내년 美중간선거 앞두고 공화당에 정치
자금 지원 재개

/사진 뉴시스

▲중일 갈등 속 일본 동물원 ‘마지막 판다’ 관람
인파 급증

▲트럼프, 베네수엘라 해상 완전 봉쇄…“경제 전
쟁을 군사 전쟁으로 전환”

▲佛하원, ‘연금개혁 잠정 중단’ 사회보장 예산안
승인

▲伊 알프스 절벽서 공룡 발자국 수천개 발견…2
억년 전 흔적